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완료...참사 2년 11개월만에

8개 동 주거부 공사 마쳐...1~3층 상가부 정밀진단 '안전' 주장 지상 24~39층 아파트·오피스텔 이달 재시공...2027년말 완공

신축중인 건물이 붕괴해 작업자 6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가 전부 철거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7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지상 주거층에 대한 철거 공사를 공식 종료했다고 밝혔다.

붕괴 사고가 난지 2년 11개월, 철거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5개월만이다.

철거 공사는 1단지 4개 동, 2단지 4개 동 총 8개 동에 대해 1~3층 상가부를 제외한 주거부에 한해 이뤄졌다. 공사 후 남아있는 1~3층 상가부는 한국시설안전협회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화정아이파크 아파트는 지난 2022년 1월 11일 201동 건물을 짓던 과정에서 23~38층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졌다. 같은 시공사 추진 중인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가 일어났지 불과 7개월만이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사고 4개월만에 "입주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화정동 아이파크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해 7월 철거 작업이 시작했다.

철거 과정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전면 철거'가 아니라 '상가부(1~3층)를 제외한 주거부만 부분 철거'로 축소해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철거 범위는 시공사와 입주자와 10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주거부만 철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주거층에 대한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신축 작업 전면중지 명령을 해제하는 행정 절차를 밟은 뒤, 이달 중으로 재시공을 시작할 방침이다.

재시공은 당초 계획했던대로 지하 4층, 지상 24~39층 규모로 이뤄진다. 아파트 705세대, 오피스텔 142세대다.

완공 시점은 오는 2027년 12월 중으로 예정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재시공 중에는 콘크리트 품질, 강도 등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콘크리트 급열 양생기간 등도 확대하는 등 조치하겠다"며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총 22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 송치,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으로 무단 공법 변경, 불량 콘크리트 사용, 부실한 시공 관리 등을 꼽으며 인제(人災)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7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공사가 마무리됐다. 철거-재시공 현장에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 1~3층 상가부 건축물이 남아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현행법 체포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신체자유 침해”

인권위, 수사관 직무교육 권고

경찰이 현행법 체포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전남의 한 경찰서장에 게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조 위원장인 A씨는 노사관계 규탄 및 투명한 임금 교섭을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도로에 설치한 망루에서 농성을 하다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체 각 부위를

결박하고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짓누른 뒤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망루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돼 이를 철거하고자 A씨에게 자진해서 내려오도록 설득했으나 응하지 않아 안전매트를 설치했다”면서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법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저항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가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관들에

게 수차례 자신이 노조위원장임을 밝히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당시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것은 정당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저항 정도가 500ml생수병에 남아 있는 물을 뿌리는 등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소극적 저항으로 수갑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5명 이상 경찰이 에워싸고 넘어진 A씨를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리게 해, 얼굴을 바닥에 닿게 짓누르며 뒷목을 제압한 상태로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초교 집단 식중독 76명으로 늘어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세(12월 17일자 광주일보 8면)를 보인 학생 수가 70여명까지 늘었다.

광주 서구보건소는 17일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설사, 구토, 발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 수가 7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초 증상 발현일인 지난 12월 이후 15일까지 35명의 유증상자가 집계됐으며, 이후 학교 측이 전수조사를 거친 결과 유증상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다만 16~17일 이들 동안 전수조사로 확인된 유증상자 외 추가로 증상을 보인 사례는 없었다.

유증상자 중 5명은 입원했다.

입원 환자들에게서는 모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 보건당국은 유증상자와 조리종사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검체 채취를 했으며 보존식, 조리기구 등 총 30건의 환경 검체를 수거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당국은 “교직원 등 성인 감염자는 없으며, 면역력이 비교적 낮은 학생 위주로 유증상자가 발생했

다”며 “노로바이러스는 급식이나 간식, 변기, 세면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역학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화장실과 변기, 세면대 등 방역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조사결과에 따라 학교 등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행정조치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2025학년도 정시 대비 집중상담 주간 운영

광주교육청 18~23일

광주교육청이 18~23일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상담실에서 '2025학년도 정시모집 대비 집중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정시 집중상담 주간은 올해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희망하는 광주 고3 재학생, 졸업생, 학교밖청소년, 학부모 등 2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상담은 광주진학부장협의회, 광주진로진학지원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진로진학지원단 활동 교사 등 현직교사 22명이 맡는다.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은 의대 증원, 전공 자율선택제(무전공) 선발 확대, 서울 소재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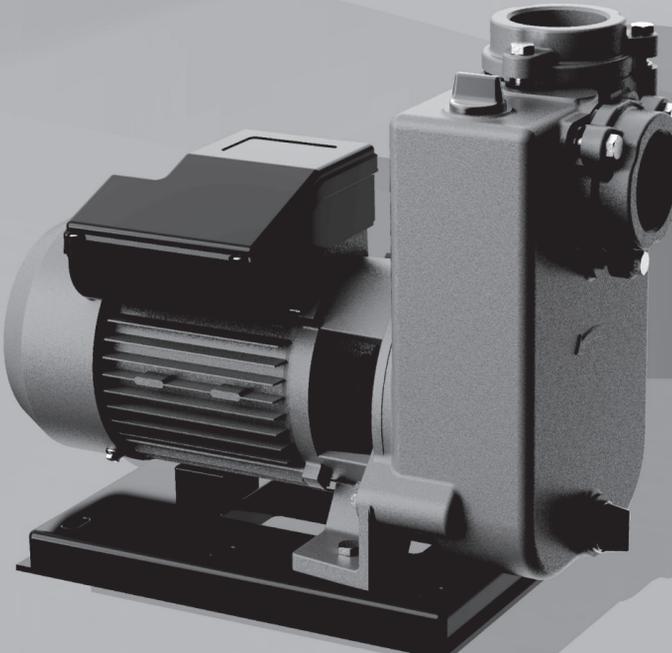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다군 확대, 선택과목 지정 축소 및 선택과목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전공자율선택제 확대로 기존 모집단위(학과) 선발 인원수가 지난해와 달리 대폭 축소된 대학들이 있어 무전공에 지원하지 않는 수험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수립해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정시모집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다”며 “정시에 지원하는 모든 광주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